

경기교통공사 설립 관련 행안부 최종 협의 결과 공개

- ◆ 전국 최대 규모 지자체에 부응하는 맞춤형 버스운영 및 노선체계 구축, 철도 안전운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교통공사 설립 관련
- ◆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설립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□ 협의 개요

- (근거법령) 지방공기업법 제49조(설립)
- (협의내용)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의견조치
- (협의부처) 행정안전부(공기업지원과)
- (협의기간) '20. 4. 13. ~ 5. 13.

경기교통공사 설립개요

- 설립 형태 : 지방공기업(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)
- 설립 주체 : 경기도
- 설립 예정일 : '20년 12월
- 주요 사업 : 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(준공영제 기반) ② 신교통수단 기획 및 운영 ③ 철도운영 및 관리 ④ 광역교통시설 확충

□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

구분	협의결과	조치계획(반영)
사업계획 관련	4개 대상사업(DRT, 준공영제, 철도, 환승 시설)을 구분하여 검토하기 보다는 예산·사업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검토하고, 통합적인 관리·운영방안 수립 필요	· 사업별 유사업무를 부분통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, 사업별 회계와 통합회계를 같이 관리함으로써 유기적인 사업회계 관리 등이 되도록 하겠음
	경기도 교통관리계획에 비추어 경기교통공사의 역할·기능·비전 등 수립(도-시군-교통공사 역할분담 등 포함)	· 도-시군-공사간의 역할분담을 포함하는 교통공사 비전, 목표, 역할(기능) 등을 수립하여 공사 운영에 기틀로 삼겠음
	버스사업은 기초지자체인 시군과 버스 운영·관리에 대한 역할, 기능 정립, 이해관계 조정방안, 적자폭 완화를 위한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	· DRT 버스사업은 시군과 버스 운영·관리에 대한 역할 및 기능 정립, 이해관계 조정방안, 적자폭 완화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 수행 중이며, 결과에 맞게 사업 추진하겠음 ※ 버스 준공영제 경우 용역을 거쳐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'20년 시범 운영중임
	철도사업은 5년 이상의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DRT와 같이 새로운 시각으로 획기적 접근전략 모색(기존사업 답습은 곤란)	·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 철도사업에 대한 획기적 접근전략을 모색하고, 후발주자로서 첨단철도, 신개념철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

구분	협의결과	조치계획(반영)
조직인력계획 관련	<p>예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업무를 자기완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재설계 검토</p> <p>* 예: 경영기획실, 준공영제팀, DRT센터, 환승시설팀, 철도팀 등</p>	<p>· 실제 공사출범시 사업기획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재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음</p> <p>· 특히, 경기연구원과(휴먼교통물류연구실) 협력을 통한 정책연구와 기획을 접목하고 활성화시켜 신사업발굴, 신제도 도입 등에 자기완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토록 하겠음</p>
	<p>다른 교통공사 등 비슷한 기관의 조직 인력을 보다 깊이 있게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력 설계</p>	<p>· 사업특성이 유사한 타 공사의 조직과 인력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조직·인력을 구성·운영토록 하겠음</p>
	<p>DRT, 준공영제, 환승시설 사업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중복 조직인력 감축계획 보완</p>	<p>· 경기교통공사 설립타당성 검토 시 중복인력 감축에 대하여 검토 제시한바 있으나, 조직·인력재설계시 추가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음</p> <p>· 버스 준공영제 위탁의 경우 사업범위에 맞게 道 준공영제 관련조직·인력 감축을 공사 출범과 함께 실시할 계획임</p>
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관련	<p>시군, 사업자 등 이해관계 기관·단체·집단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이해갈등 조정방안 마련</p>	<p>· 현재, 시·군, 버스업계 등과 경기교통공사 주요 사업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수시로 의견수렴 진행중이나,</p> <p>· 공사 설립전후 상호 이해가 충돌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의 장을 정례화하여 마련하겠음</p>
수요감소와 적자대책 관련	<p>철도는 5년 이후 수요감소가 예상되고, DRT와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적자를 최소화할 방안과 추가 출자 등 적자보전 대책 마련</p>	<p>· 공사의 철도운영 및 준공영제 관리 사업은 경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직접투자사업이 아닌 위탁관리 수익사업으로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음</p> <p>· DRT 사업의 경우 공사도 운송사업자로 기존 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각종 지원금(국비, 환승할인, 운영개선 등)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마련 및 시행 예정</p> <p>※ 현재 DRT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시행중이며, 운행적자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(예: 세종도시교통공사와 같은 운행손실금에 대한 전출금)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</p> <p>· 철도와 DRT, 준공영제버스의 직결환승 체계구축으로 통행시간·편의를 제고하여 수요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겠음</p>

☞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 교통정책과 교통공사 T/F팀 (담당자 : 031-8030-3902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